

ESG Wannabe

SK증권 기업분석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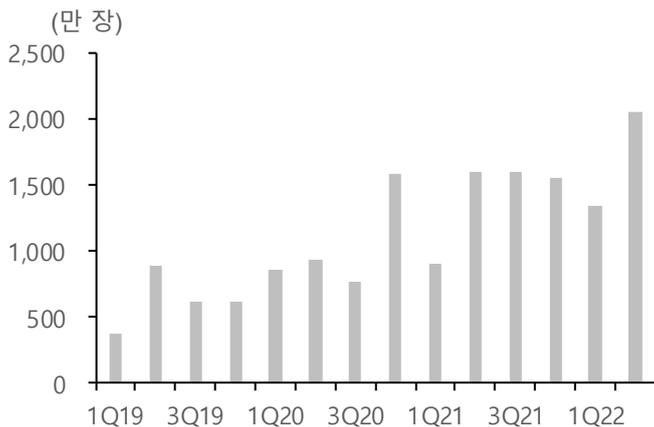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남효지. 3773-9288



새로운 트렌드가 될 플랫폼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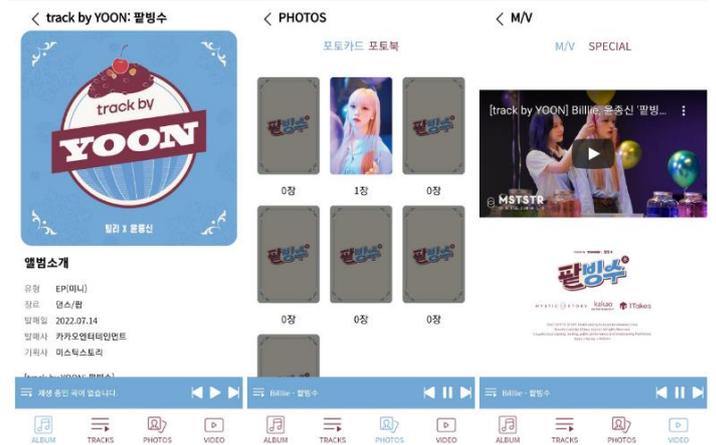
- 지난 3/29 발간된 <ESG Wannabe - 높아져가는 K-POP 인기 속 부각되는 사회적 책임> 보고서에서 앨범의 환경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 팬들은 포토카드 수집, 사인회/팬미팅 응모권 당첨 등을 위해 실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의 앨범을 구매, 필요 이상의 앨범은 폐기되며 대량의 쓰레기 발생. 앨범 과대 포장, 앨범 소재의 환경 문제에 대해 당시 기획사들은 저탄소 용지와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해 앨범을 제작하는 정도로 대응
- 아이돌 팬덤의 '앨범강' 문화가 지속되고 해외 팬들의 유입으로 음반 판매는 여전히 높은 수준. 상반기 circle chart Top 100 기준 음반 판매량은 3,391만장으로 작년 상반기 2,495만장 대비 36% 증가. 보이그룹 뿐만 아니라 걸그룹도 앨범당 판매가 100만장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음반이 기획사 이익의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환경 문제의 심각성도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문제로 인해 최근 플랫폼 앨범이 등장. 플랫폼 앨범에는 CD 대신 팬들에게 필요한 포토카드가 들어있고 음반 차트에 동일하게 반영. 현재 플랫폼 앨범 업체는 1Takes와 위버스 앨범이 있음. 1Takes에서 에이핑크, 브레이브걸스, 강다니엘 등이 플랫폼 앨범 발매에 참여. 위버스 앨범은 제이홉, 세븐틴, 뉴진스와 같이 하이브 자사 아티스트들이 주로 참여. 포토카드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앱 내에서 음원 스트리밍, 포토북, 포토카드, MV 시청 가능
- 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앨범이 보편화되며 실물 앨범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을 줄이는 대안이 되고, 팬 경험의 스펙트럼을 넓힘과 동시에 기획사들의 지속가능 경영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

음반 판매량 추이



자료: circle chart, SK증권

플랫폼 앨범 구성 예시



자료: 언론 보도, SK증권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6개월 기준) 15%이상→매수 / 15%~15%→중립 / -15%미만→매도